

## 쓰치자키 신메이사 신사

쓰치자키 신메이사 신사는 일본 황실의 선조로 여겨지는 신토(일본의 민속 종교)의 태양신 아마테라스오미카미를 모십니다. 이 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제는 쓰치자키 미나토 히키야마 축제로, 이틀간 히키야마라고 불리는 커다란 목재 수레를 끌며 거리를 행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요 행사는 7월 20일과 21일에 열리지만, 5월부터 9월까지 다양한 의식과 공물을 바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2016년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쓰치자키 신메이사 신사는 1620년 쓰치자키의 기모이리(마을 대표)였던 가와구치 소지로(생몰년 미상)가 창건했습니다. 가와구치는 항구 근처에 기도할 장소가 없는 것을 걱정한 주민들의 의뢰를 받아 다이묘(영주)인 사타케 요시노부(1570~1633)에게 신사를 세워도 좋다는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쓰치자키 신메이사 신사는 사타케 요시노부 이전의 다이묘가 기거하던 성이었던 미나토 성터에 지어졌습니다.